

군산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입주민 호응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문 시설 개·보수비 지원 사업 73억원 투입 379개 단지 정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병행

군산시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확대 시행하며 주거환경개선에 나서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안전점검구역 시행 및 위험시설 정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거안정지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 공용부문 시설 개·보수

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최대 성과를 보인 올해는 10억6000만 원을 들여 45개 단지의 열악한 공용시설을 정비했다. 현재까지 총 379개 단지에 73억원이 투입됐다.

또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 운영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 된 91개 단지를 3~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150여개 단지에 이르고 대부분 소규모 단지로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안전점검 위탁유역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4개 단지 256개 동에 대해 전문업체의 안전점검을 진행해 물리적 환경개선 및 건물수명 연장을 위한 적정 보

수·보강안을 제시했다.

시는 점검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위험담장 철거사업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증가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분장민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따뜻한 선형' 김장김치 200kg 수성동 주민센터 기탁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감독 박희연)이 지난 26일 '사랑의 김치 한 포기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김장김치 200kg을 수성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박희연 감독은 "연말을 앞두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정읍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씨름단 모두가 꾸준한 봉사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김치는 수성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내 결연가정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단풍미인씨름단은 2016년 1월 창단한 이후 꾸준히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며 씨름 발전과 정읍시 홍보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추석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추석 장사 씨름대회'에서 태백급 순회한 선수가 2위, 오준영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김장김치 200kg을 수성동 주민센터에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익산시,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 선정... 24시간 무인 대출·반납 가능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U-도서관 구축사업은 주민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24시간 무인 대출반납 서비스를 구축하는 신개념 도서관이다.

시는 유통인구가 가장 많은 KTX 익산역사 내에 "U-라시아 스마트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익산시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책이음 회원증을 소지한 전북도민들도 소정의 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국비 등 총사업비 1억3000만 원을 투입해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 등 인기도서를 중심으로 5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 신간도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최신 도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U-라시아 스마트도서관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이자 철도 교통의 중심인 KTX 익산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출퇴근 시민들과 익산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돼 많은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 순창 무수·대정·탄금·용내 등 4개 마을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순창을 신남리 일원 무수마을 외 3개 마을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에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며,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농업환경 분야별 개인 및 공동 활동과제 수행에 따른 활동비가 지급된다.

군은 사업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내년 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관 주도형 사업을 탈피, 주민들이 스스로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다양한 환경개선 및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시행함으로써 환경

보전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수마을 외 3개 마을(대정·탄금·용내)은 인접한 4개의 마을이 하나의 하천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대부분 농가에서 하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깨끗한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순창을 신남리 일대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 확대하고 있는 곳으로, 누룩정(생), 왜거리 서식지, 당산나무 보호수 등 다양한 농업유산도 보유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농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 스스로 농업환경, 농업유산,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운동에 앞장서줘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점차 순창군 전 지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목포가톨릭대, 혁신 취업 특강 '눈길'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 정상훈씨 초청 진로탐색 강의

목포가톨릭대가 글로벌 의료보건 생태계에 진출할 수 있는 취업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갖는다.

목포가톨릭대 대학혁신사업단 취·창업센터는 28일 오후 이 대학 본관 대강의실에서 간호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청 강사는 국경없는의사회 소속으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에볼라 감염지역이었던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던 정상훈(사진)씨다.

정씨는 '왜 이렇게 사십니까'를 주제로 다른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현장 활동가들에게 끝없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제한된 자원 때문에 더 잦은 선택을 강요당하며 슬한



선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장 활동가로 사는 이유, 그리고 이어지는 더 큰 '성장'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주재목포가톨릭대대학혁신사업단장은 "글로벌 역량 함양과 세계시민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인 세상 너머의 기아, 빈곤, 사회, 경제, 외교, 정치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적 연대의 의미를 알아가고 열린 사고를 가진 국제적 통용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순천시, 1000만명 방문객 유치 총력전

관광초대권 등 900만원 상당 경품 이벤트 실시

순천시가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1000만 방문객 유치를 위해 9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내건 홍보이벤트(포스터)를 실시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순천시 방문객 9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1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30일까지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초대권, 숙박권, 식사권, 예코백, 손수건 등 900만원 상당의 경품을 건 이벤트를 통해 막바지 목표 관공객 유치를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순천시로 삼행시 짓기', '예쁜 손글씨를 찾아라'를 진행한다.

단체관광객이 순천을 찾을 경우 여행사에도 감사 편지와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900만명 경품 이벤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8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진행되는 MBC 가요페스티벌과 12월 1일 드라마세트장에서 진행되는 해리포터 마법학교 졸업식 등 다양한 행사로 12월 20일까지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의 대표 겨울축제인 국가정원 별빛축제도 관광객 발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돼 연말까지 1050만 명이 순천시를 찾을 것으로 예측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무안군, 명품 송아지 육성... 축산농가 소득원 창출

무안군이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고소득원 창출을 위해 명품 송아지 육성에 나선다.

무안군은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4억원씩 총 12억 원을 투입해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우량 암소가 생산한 우량 송아지를 브랜드 송아지로 육성해 관리하고, 육성한 송아지를 전자 경매시장에서 관내 한우 농가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앞으로 시행기관인 목포무안산안축협에 가족개량,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 검사, 브랜드 기반 관리비 등 송아지 브랜드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